

제 9 과: 요한계시록 21 장

생각해봅시다: 여러분이 가 본 곳 중 가장 아름다웠던 곳은 어디입니까?

시작기도: 주님, 이 세상의 아름다움은 우리로 천국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게 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 주위를 감싸는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시시때때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생각하며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1 장 1-8 절, 22-27 절을 소리 내어 읽으십시오.

툼 라이트의 책을 읽으십시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한의 책을 읽으면서 마지막 장면이 ‘하늘’의 그림일거라고 예상하여, 요한이 하는 말의 영광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 완전히 실패한다. 플라톤을 틀렸다. 고금을 막론하고, ‘하늘’은 (아마)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완벽한 세계고, ‘땅’은 우리가 기뻐하며 영원히 떠나야 할 형편없는 2 급 임시 거처가 아니다. 계시록 곳곳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땅’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창조 세계의 영광스러운 한 부분이고, ‘하늘’은 물론 하나님의 거처지만, 또한 ‘바다’가 악한 권력의 상징으로서 있어서, 어느 시점에 ‘하늘의 전쟁’이 거기서 벌어지는 곳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2 차원 세계의 두 요소 모두에게 갱신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일이 성취되었을 때, 우리에게서 새 하늘만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 남아 있다. 하늘과 땅은 완전히 또 영원히 서로 하나가 된다. 3 절의 ‘거하다’라는 단어가 핵심이다. 요한이 사용하는 단어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거하시며’ 자기 백성 한가운데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개념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요한복음이 예수님에 대해 하는 말이다. 말씀(Word)이 육신이 되어 사셨고, ‘거하셨고,’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고, ‘성막을 세우셨고,’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주목했다. 몇모르는 세상과 반기지 않는 백성들에게 오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이제 하나님은 우주적인 범위에서 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로 오셔서 치유와 위로, 기쁨의 임재로 영원히 사신다.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우리의 사고에서 오랫동안 핵심 주제였던 ‘성육신’ 개념이 하나님의 미래 세상에 관한 우리의 사고에서 핵심 주제로 나타난다. 하늘과 땅은 예수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었다. 하늘과 땅은 언젠가 완전히 또 영원히 연결될 것이다. 바울은 에베소서 1:10 에서 정확히 똑같은 내용을 말한다 (187-188).

다시 말해 새 세상은 아름다움과 힘, 기쁨, 부드러움과 영광으로 충만하다는 의미에서 연재 세상과 비슷할 것이다. 예컨대 새 세상에서는 땅은 물론이고 하늘(11:19)에도 당연히 존재했던 성전이 폐기될 것이다 (21:22).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생각이 어리석기 때문이 아니라, 성전이 온 우주를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숨은 계획의 예고편 모델이었는데, 이제 마침내

실현될 것이기 때문이다. 새 세상은 현재 세상과 비슷하겠지만, 특히 현재 세상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든 죽음과 눈물, 그리고 죽음과 눈물을 야기하는 모든 특징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 “더 이상 바다가 없다”는 의미가 그것이다. 성경 여러 곳에서 그렇듯이, 계시록 곳곳에서 바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어두운 혼돈 세력이다. 바다는 첫 번째 괴물이 등장했던 자연의 원소다. 바다는 처음 하늘에 들어 있었다. 다시 말해, 기물의 일부로 거기 있다는 의미에서, 또 그 경계선이 엄격하게 제한된다는 두 의미 모두에서 ‘들어 있었다’ (contained). 악은 도를 넘어 마음껏 활동하다 몰락을 자초하도록 허용되었을 뿐이다. 하지만 새 창조 세계에는 더 이상 괴물이 다시 등장할 수도 있는 곳, 바다, 혼돈이 없을 것이다.

물론 이 그림의 중심은 아직 새 세상 자체가 아니고, 첫 번째 창조 세계를 만드셨고 그것을 구속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 어린양을 보내실 만큼 사랑하신 한 분이신 참하나님이다. 여태까지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흐릿하게만 언급되었다. 그분은 거기에 계셨고 경배 받으셨지만,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 혹은 천사 혹은 “하늘의 음성”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다. 이제 마침내 1:8의 첫머리 진술 이후 처음으로 하나님이 친히 요한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통해 요한의 교회와 오늘의 교회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이 대화가 새로움의 한 부분인 것 같다. 마치 4절에서 어떤 하늘의 하급 관료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최고의 온유함과 친절의 행동으로,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는 것이 새로움의 한 부분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성품이 계시되고, 우리는 대부분 이 놀라운 전망을 목상하며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우리 앞에 열리는 것을 느낀다 (189-190).

따라서 요한의 환상에서 새 예루살렘은 새 창조 세계의 전부가 아니다. 그것은 새 창조 세계 전체의 중심부와 영광,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마음껏 흘려보내는 원천이다. 새 예루살렘은 지성소지만, 사실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할 것이고 궁극적인 성전이 될 것이다. 요한이 하나님의 종들과 어린양이 경배하고(3절) 그분의 얼굴을 볼 뿐만 아니라(4절) ‘영원히’ 통치한다고 서술할 때(5절), 이 말의 의미가 바로 이렇다. 계시록의 첫출발부터 우리는 어린양의 제자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라는 말을 들어 왔고, 이제 우리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한다. 그 도성(city), 다시 말해 신부, 다시 말해 어린양의 제자에게서 치유와 회복의 청지기직이 흘러나와야 한다. 이렇게 해서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 세계가 섰고, 또 자신이 자비로 충만하다는 사실을 결정적으로 보여 주실 것이다.

따라서 요한의 환상은 새 에덴의 환상이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동산도 아니라 도시(city)다. 동산의 모든 요소가 여전히 거기 존재하지만, 도시 안과 주변에서 보존되고 개선된다. 우리는 우리가 이 둘 다에 적합하게 만들어졌음을 직감적으로 안다. 한편에서 시골의 낭만적 전원과 다른 한편 도시 개발자의 꿈은 대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 새 창조는 두 가지 비전을 하나로 묶어 둘 다를 변혁하고

치유한다.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될 때, 신부와 어린양이 하나가 될 때, 이 두 가지는 창세기의 이원성이 항상 의도해 왔던 대로 마침내 통합되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동산과 도시도 하나가 된다. 인간은 서로, 또 하나님과 연합하여, 보좌에서 나오는 영광스런 빛을 받으며, 땅과 그 열매 위에 기쁘고 지혜로운 청지기직을 수행할 것이다. 이 궁극적인 미래 환상의 다른 특징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것도 지금 기대해야 한다 (200-201).

함께 토론해 볼 주제:

1. 대도시들을 방문할 때,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합니까?
2. 자연 경관들(국립공원, 미시건 호수, 록키 산맥 등)을 방문할 때,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합니까?
3. 어떻게 우리는 이 두 다른 곳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고 그것을 위해 일할 수 있겠습니까?

마침기도 (찬송 “내 평생에 가는 길” 중에서):

주님, 당신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그날이
속히 오도록 하여 주옵소서.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큰 나팔이 울려 날 그때에도,
주님이 오셔서 마침내 이 세상을 심판한다 해도,
그럴지라도 나의 영혼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